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여름 야간관광 콘텐츠 성황리 마무리

부안군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변산·격포·모항해수욕장에서 운영한 '변산 비치파티', '격포오션바이브', '모항비치버스크스'가 2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변산해수욕장에서 16일간 시범 운영한 '변산 비치파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변을 단순히 방문하는 관광에서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지의 일환으로 올해는 장소와 운영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변산해수욕장의 변산비치파티는 다채로운 공연과 캣테일을 결합한 파티형 콘텐츠로, 격포해수욕장의 격포오션바이브는 출연자와 관객이 소통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모항해수욕장의 모항비치버스크스는 아늑한 해변 분위기를 살린 감성 버스킹 콘텐츠로 운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요리교실 운영 '호음'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지중해식 요리·제빵 교육에 모집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시민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촌생활문화 기술교육인 '하루의 식탁을 여는 요리와 빵, 지중해의 아침' 과정은 지난 11일 시작해 9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10차례 진행된다.

화요일에는 지중해식 빵을 만들고 목요일에는 건강요리를 실습한다. 시민들이 요리와 빵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건강한 아침 식탁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모집 인원은 20명이었지만 신청자는 50명에 달했다.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민주당 지역위, 지역 주요 현안 해결 · 국가예산 확보 위한 논의의 장 가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8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정 주요현안과 2027년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 간부공무원,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군의원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부안군 현안 반영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 △부안군 신바람 기본사회 추진 등 3대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2027년 국가예산·공모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부안권역 산업시설용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반 마련, 서해안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 부안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격포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부안 뉴시복합타운 조성,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ESG 미디어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 등 2027년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고위당정

협의회를 통해 민선9기 핵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부안군이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을지연습 18~21일까지 진행

국가 비상 대비태세 본격 점검

정읍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2026 을지연습'을 진행한다.

연습 첫날인 18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을 실시해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모였는지 확인하고 전시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

이어 최초 상황보고와 전시 조직 편성, 부서별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자신의 임무와 보고·대응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올해 연습은 달라지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제 위기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연습 기간에는 전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와 지도·문서를 바탕으로 대응절차를 점검하는 도상연습을 진행한다.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분산·이동훈련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도 실시한다. 부서별 임무 수행 능력과 기관 간 연락체계, 상황별 대응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정읍시 제2청사에서는 자폭형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벌인다. 군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현장 통제 등 기관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이학수 시장은 "모든 직원이 실제 상황이라는 자세로 맡은 임무와 대응 절차를 철저히 익혀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5년간 400억 투입 · 상수도 정비 본격화

노후 상수관망 정비 ·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 상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고창군이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대규모 상수도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에 나선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2031년까지 총 사업비 약 4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310억)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사업(44억) △상수도 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46억) 등 3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면서 첫 발을 뒀다.

2031년까지 6년간 무장·해리·흥덕 급수구역(8개면)의 노후관 교체(13.9km),관망정비(37.0km),GIS 시스템 구축(18.1km) 및 누수 탐사 등이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던 누수 손실을 막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문업체 누수탐사, 블록 고립, 단계 시험 등을 실시해 누수 지점을 신속히 찾아 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창군은 사업지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상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배수지·가압장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누수로 버려지는 수도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 속에서도 단수 걱정 없는 선진 수도 행정 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을지연습 나흘 간 일정 돌입

18~21일까지 5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6년 을지연습'을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에는 고창군을 비롯한, 고창대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는 실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제훈련과 안보의식 고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을지연습 첫날 공무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비상소집 명령 전달체계,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 비상소집 문자·전화 발송 장비의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최초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훈련과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전시상황실기구 설치 및 운영 훈련 등을 통해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임무 숙지와 총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을 토의한다.

연습 2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전시이재민 수용소 화재발생 대응을 주제로 도상연습을, 다중이용시설 테러 및 화재 대피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2시에는 공습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벼짚 논에 돌려주면 최대 75만원... 정읍시, 내달 4일까지 접수

벼짚환원사업으로 화학비료 사용 감소 도움... 1ha당 25만원 지원

정읍시가 올해 940ha 규모의 벼짚환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9월 4일까지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읍지역 농업인이다. 지원액은 1ha당 25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3ha까지 신청할 수 있어 최고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살경쟁력제고사업'의 하나인 벼짚환원사업은 벼를 수확한 뒤 벼짚을 잘게 잘라 논에 되돌려 넣는 방식이다. 벼짚이 썩으면서 흙 속 유기물을 늘리고 땅심을 높여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신청 면적이 계획한 940ha를 넘으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중소농을 우선 고려해 농가별 지원 면적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벼짚을 실제로 논에 되돌려 넣었는지 확인한 뒤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6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18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열고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습 개시 상황 보고와 군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되

었으며, 군사 및 정부 연습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별 주요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부안군은 이번 연습 기간 동안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닮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2026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